

■ 교회소식 ■

1. **청파성서학당** : 오늘 오후에 청파성서학당이 열립니다.
2. **회계교육** : 각 교육부서와 찬양대, 선교회의 회계 교육이 오늘 오후 1: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 **수련회** :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2월 2-4일 인제 원대교회에서 열립니다.
4. **유아유치부 나들이** : 유아유치부가 다음 주일(4일)에 해태 키즈 뮤지엄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5. **모집** :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6. **신앙실천** : 날이 추워서 몸을 움크리고 있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를 돕기 위해 몸을 쓰는 이가 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사 26:1~9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기석	한성건	

1월	1부 영접위원	권미정	헌금위원	박숙미
	2부 영접위원	장원호 조문규 박기영 진정숙 주은경 김현주		
	2부 헌금위원	곽권희 이형숙		

오늘 식당 봉사	이소애 이소혜 박유경 김지현 김해선 남인자 강세기 김성우		
다음주식당봉사	정영선 김애순 김경혜 안현숙 엄은경 신현일 김정훈 곽상준		
오늘설거지봉사	3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3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희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모임으로
상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4 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 경배의 찬송 17. 사랑의 하나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품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운 계절을 잘 이겨 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냉랭한 세상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좀처럼 분열을 멈추지 못하는 이 나라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거짓 뉴스를 만들어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통해 사익을 챙기려는 이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익에 눈이 멀어 대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 이 땅 위에 주님의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눅1:78b,79 인도자
- ▲ 교 독 문 85. 요한1서 4장 다 함께
-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하현철 장로
- 2부응답송 찬양대
- 2부찬양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 함께
- ▲ 성경봉독 고전 8:7-13 I. 인도자
II. 장병준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I. 회복 마중물 찬양대
II.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국지연 권혁래 김명숙 김명희 김문주 김승현 김수진 김영옥 김중현 성귀옥
김지호 전해리 김태정 김현주 마재국 손의나 박기영 박미연 박인혁 고숙이
박준민 최광희 박지혜 서효진 정윤성 성지현 송인선 안길상 이형숙 안미숙
양경해 오슬기 오재형 임고운 우순덕 이미휘 이왕준 송상경 이유진 이윤범
나지선 이주영 오재영 이증자 이지웅 이치림 강상연 이현죽 이고임 임설희
임승동 백혜숙 임형옥 장원호 박성희 정성식 주은경 최재욱 이수정 최철수
곽권희 한상균 한성건 정지혜 한성란 박창복 한훈식 권채영 허진영 현 진
무명1

감사헌금

강혜린 김성수 박기태 박미희 박성은 이영주 박하임 박재영 이현정 방경선
오민용 우순덕 우윤석 이미영 임진섭 이상도 이재삼 전정현 이증자 이지하
이현지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장영숙 정구봉 정학성 김현숙 조수아 조유진
최형서 최혜정 한상수 남해린 1부(마중물)찬양대 무명6
박준민 최광희(어머니 장례) 심재남(딸 대학 합격) 안현숙(딸의 순산)
이부곤(어머니 장례) 홍운선 정연경(자녀 대학 합격)

생일감사헌금

허호범

녹색꿈헌금

유수진 장현희 채일석 무명2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책가방은 멀쩡하네

장인수

고1 때 오월 오일

시골집이 홀랑 불탔다

삼시간에 헛간과 닭장까지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히 외양간의 소와 염소만은 무사했다

하속비를 받으러 시골에 내려왔다가

젓더미를 보고 말았다

"인수야, 책가방은 멀쩡하네."

불길 속에서도

아버지는 나의 책가방을 먼저 구했던 것이다

동구 밖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나를 부르더니

시꺼멓게 재가 묻은 손길로


하속비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괜찮다. 아버지가 있잖아."

웃기까지 하셨다

말 씬	걸림돌이 되지 말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211.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걸림돌이 되어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지식과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다른 이의 입장과 마음을 살피며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작은 지식과 주장을 앞세워 다른 이의 가슴 위에 커다란 돌덩이를 올려놓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나의 목소리는 낮추고 다른 이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보다는 함께 생명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믿음으로 읽는 글 ■

밥상 앞에서 화내지 말자

아침 절 운동 시간, 다나의 방해 없이 절을 하려고 밥상에 고구마 접시를 내놓았다. 계획대로 다나는 얌전히 고구마 접시 앞으로 접근했고 다울, 다랑이와 나는 절을 시작했는데, 다울이가 자꾸 다나 쪽을 살피느라 절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다. "어, 다나가 고구마를 가지고 장난을 치네. 다나야! 고구마 찌르지 마라." "야, 절할 때는 절하는 데 마음을 모아라. 다나는 내비 두고."

그렇게 타일렀지만 다울이는 계속해서 다나를 향한 경계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다. 그뿐인가. 절을 다 끝나고 밥상 앞에 앉은 다음에도 여전히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다나 때문에 이게 뭐야" 하며 짜증을 냈다.

순간,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어찌지 못하고 격분하여 소리쳤다. "야, 이 밴대야 소갈딱이야! 엄마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자꾸 그럴래? 밥상 앞에 두고 인상 쓰는 거 정말 보기 싫어. 동생이 어리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속 좁게 굴어. 그렇게 까칠하게 굴 거면 차라리 너 혼자 나가서 살아!"

한 번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자꾸 다그치듯 잔소리를 되풀이했더니 다울이가 으앙 울음을 터뜨렸다. 그쯤해서 그만두었어야 했는데 우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또 잔소리를 했다. 그러자 다울이가 "그래, 나 나갈 거야!"하며 뛰쳐나갔다.

앗, 다울이가 저렇게 세게 나올 줄이야. 나는 몹시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밖에 비도 오는데 멀리 가지는 않겠지. 잠깐 나갔다가 금방 돌아오겠지. 불안함을 외면한 채 억지로 고구마를 입안에 집어넣었는데 무슨 맛인지 맛도 느낄 수가 없었다. '찾으러 나가 봐야 할까? 아니야, 저 놈의 성질머리를 이번 기회에 잡아야지! 그래도 그렇지 무슨 일 나면 어찌려고... 설마 무슨 일이야 있으려고...' 나도 내가 어째야 좋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랑이가 말했다. "엄마, 빨리 나가서 형아 찾아보자. 형아 안 오면 어떡해. 비 맞으면 추울 텐데."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다나를 들쳐 업고 우산을 든 채 집을 나섰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멀리 가지는 않았겠지 싶어서 일단 집 둘레부터 살피기로 했다. 수돗가, 사랑방, 창고, 닭장... 살살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다울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쯤 되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대체 어디로 갔을까? 마을 어귀 동각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 허둥지둥 동각까지 가 봤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아, 이럴 수가! 까칠하고 까다로운 구석이 있긴 해도 알고 보면 다정다감한 다울이. 첫째라고 만날 이해하고 양보하라고 하니 제 댄에는 많이 힘이 들게다. "엄마, 형아가 멀리멀리 떠나다가 길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금방 돌아올 거야." 다랑이를 안심시키려고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비는 속절없이 쏟아지고, 나는 다울이가 듣고 있기를 바라며 목 놓아 소리쳤다. "다울아, 어디 있니!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할 수 없이 허탈한 심정으로 집에 들어가서 신랑에게 전화를 했다.(신랑은 화순읍에 불일을 보기 위해 나가 있는 참이었다.) "다울이가 집을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나는 자초지종을 얘기하다가 흐느끼며 울어 버렸다. 다울이만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내가 더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흘리는 참회의 눈물. 다울이가 까칠하게 굴 때 혼내기보다 따듯하게 안아 줄 걸 하는 뒤늦은 후회.

그런데 전화를 끊고 얼마 뒤 드르륵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다울이었다. 이쯤해서 돌아와 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자존심 따위 내세우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울이를 꼭 안아 주었다. 다울이도 눈물을 흘리며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인데다 몸은 빗물에 흠뻑 젖어 안쓰럽고 불쌍한 내 새끼!

... "엄마, 나 이제 고구마 절대 안 먹을래." "왜, 고구마가 싫어졌어?" "아니 먹고 싶기는 한데 아까 고구마 때문에 엄마 속상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먹으려구." 들어 보니 고구마가 먹고 싶다는 얘기였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하지 왜 말을 빙빙 돌려서 하나'라고 말하려다가 그 말을 꿀꺽 삼켰다. 대신에 고구마를 갖다 주며 다시 미안하다고 했다. "엄마가 아까 너무 심하게 화를 내서 미안해. 많이 놀랐지?" "응, 엄마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 말대로 일찍 따로나기 하려고 산에 가서 집 지을 데 찾아다녔어." "그래서 찾았어?" "아니, 찾다가 너무 무서워서 돌아왔어. 근데 돌아오니 집이 너무 낡설더라. 엄마도 내 엄마 아닌 거 같고." "그래, 네 마음 알 것 같아. 배고플 텐데 어서 고구마 먹어."

고구마를 먹고 나니 다울이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우린 그제야 아침부터 생쇼를 했다며 부끄러움이 묻어 있는 웃음을 지었다. 그래, 돌아보니 우습기 짝이 없지만, 큰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다.

오늘의 교훈은? 밥상 앞에서 화내지 말자!

- 정청라,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중에서